

##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하며

맹지영(독립큐레이터)

나는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작품의 미래 모습을 내 나름대로 상상하곤 한다. 그 미래가 아주 가까울 수도 혹은 수년이 훨씬 지난 훗날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가까운 미래에 내 상상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면 묘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어쩌면 나는 내 상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작가가 작품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된다. 세상의 속도는 그와 반대로 빠르게 바뀌고 이런 속도를 감지하고 반응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보일지 모른다. 느린 작품의 시간 안에서 작가의 감각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곤 한다.

작가 이웅철도 자신의 주변에서 이미 주어진 환경과 그에 맞물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려 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간과 그와 더불어 무형의 매체를 통해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보들은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자극하고 유도한다.

현실과 작품 사이에 불가피한 속도의 불일치는 작가에게 본능적으로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만들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받는 자극의 정도가 강렬하면 할수록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은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려 한다. 작가는 그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이나 무감각해져 가는 인간의 감각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초기 작품에서 드러난 표현은 다소 직접적이며 관객에게는 표현 자체, 형식에서 오는 인상이 먼저 작동하게 된다.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이미지 자체의 쾌를 먼저 느끼도록 만드는 것 자체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나는 관객이 작가의 개념이 섬세하게 개입된 작품의 미세한 언어를 읽어 내며 각자의 삶에 겹쳐지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장면을 자꾸 꿈꾸게 된다.

6분 길이의 영상작품 <동요하는 걸음>(2019)은 작가가 하고 있는 여러 시도 중 가장 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 기존 작품들이 대부분 도시와 공간에서

반응하며 만든 기학적이고 미니멀한 반복적 형상들로 표현됐다면, 여기서는 기하학적 조형성이 자연 안에서 작가의 수행적 퍼포먼스와 더불어 미묘한 균형의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영상에서 자신의 의도나 개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마치 본인 스스로에게 묵묵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 같다.

작가의 작업세계에서 그에게 던져진 ‘평화’는 느닷없을 수 있지만 이미 작가가 던지고 있었던 상충된 질문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작동했다.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은 평화와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본능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다시 살펴보고 거리를 둔 객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객관화 하는 방법으로 수치화를 통한 기준을 통해 다시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다.

‘평화’에 반응하며 만들어가는 작가의 작업 과정은 그가 그간 작품을 통해 해왔던 태도와 다르지 않다. 결국 외부의 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하고 반응하며 그것을 소화해 나가면서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의 일부를 엿본 나로서는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평가 보다는 앞으로 시도하고 만들어 갈 작품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았고, 그래서 작품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은 시각언어를 만드는 작가들에게는 어쩌면 표현 불가능한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마치 ‘평화’나 ‘행복’처럼 ‘평화로운 순간’이나 ‘행복한 순간’은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영상 <동요하는 걸음>에서처럼 작가 내부에서 상충하는 태도의 다른 지점들이 뒤섞여 균형을 이룬 장면을 나는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은 사실 다시 ‘형태가 만들어지고 구축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맹지영은 서울과 미국에서 미술관 관련한 공부와 실무를 경험하고, 200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비영리기관인 두산아트센터의 두산갤러리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두산갤러리의 전시(서울/뉴욕), 교육 프로그램(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아트스쿨 외)을 기획, 운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의 기관에 신진 및 중진 전시작가의 작가론과 다양한 미술매체에 리뷰 등을 다수 집필했고, 저서로 『스몰토크: 뉴욕에서의 대화』(2015)가 있다. 현재 시각예술분야에서 현장연구와 기획, 그리고 글을 통해 다양한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